

# 세계일보

## "경제적 빈곤층, 인권침해 가장 많이 받아"

인권위, 인권의식 실태조사 발표  
인권교육 받은 경험 11.5% 그쳐

입력 2023-11-22 15:05:16, 수정 2023-11-22 19:27:55

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집단은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등이라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.

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는 22일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(9070가구 가구원 1만5303명)을 대상으로 지난 7~9월 인권의식,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등을 조사한 '2023 인권의식 실태조사' 결과를 발표했다. 응답자의 71.0%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이 잘 존중된다고 봤으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은 50.3%만이 존중되고 있다고 봤다.



국가인권위원회. 뉴시스

특히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경제적 빈곤층(17.6%)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(16.5%), 노인(10.8%), 학력·학벌이 낮은 사람(8.6%) 순이었다. 인권침해·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으로는 '경찰·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'라는 응답이 19.5%로 가장 높았다. 이 밖에 요양원,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(15.8%), 직장생활(구직·취업 포함)할 때(11.7%)가 뒤를 이었다.

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74.5%는 유출을 우려한다고 답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견(25.5%)을 약 3배 웃돌았다. 다만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53.0%로 절반 수준이었다.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1.5%로 낮은 편이었다. 다만 전반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.4%로 높게 나타났다.

인권교육을 통해 의식을 꼭 제고해야 할 대상으로는 국가기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21.2%로 1순위에 올랐다. 인권교육이 가장 시급한 주제로 장애인을 꼽은 이가 16.8%였고 △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15.6% △혐오·차별 예방 15.4% △노동인권 13.9% 순으로 응답자들은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라고 답했다.